

東北亞 經濟協力の發展方向

1992. 12

金圭倫 (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序 文

冷戰以後時代의 國際經濟構造는 미국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안보구조와는 달리 미국경제력의 상대적 약화, 일본의 지속적 경제력 향상, 유럽공동체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多極化되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는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공식 채택, 러시아연방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및 북한의 부분적 개방 노력 등 역내 사회주의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編入이 進展되고 있다.

동북아지역국가들은 相互依存度 增大에 따른 국가간 경제협력 문제를 당사국간 雙務的 協議를 통하여 조정하고 있으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호의존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多者間 協力體制 구성에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심화는 동북아질서 및 한반도 통일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인 바, 민족통일연구원 국제연구실에서는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을 分析·展望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및 남북한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1990년대 東北亞秩序 및 韓半島 統一環境 變化를 展望하는 데 도움이 되고, 統一政策 立案에 기여할 수 있는 參考資料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2. 12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要 約

第 I 章 序 論

냉전이후시대의 국제경제구조는 미국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안보구조와는 달리 미국경제력의 상대적 약화, 일본의 지속적 경제력 향상, 유럽공동체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多極化되고 있다. 세계경제는 통신 및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世界化되고 있으나, 동시에 「유럽공동체」의 형성, 「북미자유무역지대」의 설치, 「동남아국가연합」의 자유무역지대 추구 합의 등 地域主義化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변화추세 속에서 동북아지역에서는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공식 채택, 러시아연방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및 북한의 부분적 개방 노력 등 역내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이 진전되고 있다. 역내국가들은 경제발전을 위하여 국가간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역내 및 역외국가와의 相互依存度 增大는 국가간 협력을 심화시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국제무대에서의 국가간 경쟁을 유발하고 무역마찰 등 국가간 갈등을 증폭시킬 소지도 안고 있다. 현재 동북아지역 국가들은 상호의존도 증대에 따른 국가간 경제협력 문제를 당사국간 雙務的 協議를 통하여 조정하고 있으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호의존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다자간 협력체제 구성에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객관적 전망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동북아 경제협력을 경제통합을 향한 움직임으로 국한시

켜 파악하려는 연구자세를 탈피하여 경제협력을 보다 넓은 의미에서 兩者間 및 多者間 경제관계로 파악하고 이의 발전방향을 실증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전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첫째, 동북아지역 각국의 역내 무역의존도 및 각국의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입장 분석을 시도하였다. 둘째,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기구의 활동을 분석하였다. 셋째,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의 발전방향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제시하였다.

第II章 東北亞 經濟協力에 대한 各國의 立場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역내국가간 경제관계와 각국이 처한 경제상황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나타날 것이다. 한편 동북아지역이 아·태지역의 일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아·태지역에 속해 있으며 동북아 국가들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및 동남아국가연합과 역내국가들의 관계도 동북아 경제협력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域內國家間 貿易關係

동북아지역의 1970~91년 기간 역내국가간 무역관계 발전추세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경우, 역내무역에서 대중·러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추세를 나타내는 반

면 대일본 무역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일본의 전체 무역중 역내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약간 상회할 정도이며 완만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중국의 역내 무역 의존도 발전추세는 일관된 양상을 보이기 보다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러시아연방의 역내무역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일본이나 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북한의 역내무역 중 대일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역내무역이 동북아지역 전체 역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으로 동북아지역 무역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2. 域內 및 域外 貿易依存度

동북아지역 역내 무역의존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첫째, 일본의 역내무역이 동북아 전체 역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 기간에 걸쳐 40%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일본이 역내에서 가장 큰 무역국가라는 사실을 재확인 할 수 있다. 둘째, 한국과 중국이 일본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비중이 1990년대에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셋째, 러시아의 비중은 1991년 기준 8%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1970~91년 기간중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러시아 국내사정이 불안정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

소할 전망이다. 넷째, 북한의 비중은 전 기간에 걸쳐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 북한의 역할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지역 전체 域內 貿易依存度는 緩慢한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으며 1991년에 15%대에 달했다.

동북아지역은 아·태지역의 일부이며 역내국가들은 미국을 위시한 환태평양 국가들과 긴밀한 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역내국가들의 대미무역의존도를 분석하면, 첫째, 역내 국가들 중 대미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며 한국의 대미무역의존도는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일본은 25%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대미무역 의존도가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동북아지역의 대미무역 의존도는 역내무역 의존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은 역내국가들이 미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지역주의적 무역정책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동북아지역국가들의 역외무역에서 미국과 유럽공동체 다음으로 중요한 대상은 「동남아국가연합」이며 「동남아국가연합」은 동북아지역과 함께 아·태지역에 속해 있으므로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북아 국가들의 대동남아 무역은 1970~91년 기간중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북아지역의 역내 무역의존도와 대동남아국가연합 무역의존도가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동북아와 동남아지역이

공히 경제적 역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각 지역의 발전이 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相互補完的 關係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東北亞 經濟協力에 대한 各國의 立場

위와 같은 역내 무역관계와 각국의 경제상황 분석을 바탕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역내 중진국으로서 후발 개도국에 적용할 수 있는 경제발전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역할을 수행하려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域內 經濟協力 活性化가 南北韓 緊張緩和 및 統一에 肯定的 影響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을 정점으로 하는 國際分業構造가 정착되어 자국의 인접지역인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셋째, 중국은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하여 東北三省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국제연합개발기구」 주관의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두만강을 이용한 동해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넷째, 러시아연방은 동북아 경제협력이 극동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은 작년 12월 나진 선봉 지역에 대한 ‘자유무역지대’ 설치 구상을 발표하였으며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 정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등 부분적 개방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은 동북아 경제협력을 통하여 외화 및 에너지 부족문제 등 經濟難을 解消하려 하고 있다.

第三章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와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동북아 지역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협의체로서 양 기구의 발전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발전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그 활동에 대한 분석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발전방향 전망에 필요하다.

1. 亞·太經濟協力閣僚會議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는 동북아지역국가들을 포함한 환태평양국가들간 경제협의체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15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는 1992년 태국에서 열린 제4차회의에서 상설사무국 설치에 합의하는 등 지역협력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지역주의에 입각한 활동보다는 開放的이고 無差別主義的 경제거래의 자유화 및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小地域의 次元의 개발프로젝트 성격

을 가지고 있지만 동북아지역에서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다자간 경제협력 사업이며, 동 계획의 발전방향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앞날을 예상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구체적 시간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1993년 하반기에는 실천계획서를 작성하여 각국 정부의 승인을 얻을 예정이다. 관련국가 및 「국제연합개발기구」는 두만강지역 개발에 소요될 재원을 모색함에 있어 국제금융기관 및 타 지역국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보면,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小三角 中心의 共同開發 方式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서를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3.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역내국가들간 무역관계는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추세는 1990년대에 가속화될 전망이다. 냉전시대에 역내국가간 경제교류를 제한하였던 정치적 장벽이 제거됨으로써 동북아지역 국가들간 지리적 인접성 및 문화적 유사성은 역내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한·소 및 한·중 수교는 역내국가들의 경제적 역동성과 상호보완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역내 국가들의 양자간 경제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지역의 양자간 경제관계 심화는 상호의존도 관리문제

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관심을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단기적으로는 양자간 접근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이 증대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多者間 接近 方法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자간 접근에 의한 역내 상호의존도 관리방식을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첫째, 점증하는 역내 상호의존도로 인하여 역내 환경 및 교통망 구축 문제 등 다자간 접근을 요구하는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국가경계를 넘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경제권 개념의 확산과 다국적기업의 활동 등 초국가적 경제관계의 확산은 점진적으로 다자간 접근을 요구할 것이다. 셋째, 타 지역의 지역주의화 경향에 대응하여 동북아시아에도 지역협의체를 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다자간 접근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첫째, 역내 상호의존도가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정도로 발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역내 다자간 협의체 구성시 日本의 參與는 必須不可缺하나 일본 경제의 세계적 역할로 인하여 일본이 지역국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며 일본의 과거사를 기억하고 있는 역내국가들은 일본 주도의 다자간 접근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미국이 자국을 배제한 아시아지역의 지역주의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역내국가들의 높은 대미의존도를 감안할 때,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을 배제한 지역기구를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협력은 양자간 경제관계를 심화시키는 한

편 상호의존성 증대에 따른 문제점을 쌍무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면서 점진적으로 다자간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방식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第Ⅳ章 結 論

韓半島는 東北亞地域의 中心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중요성과 남·북 분단상황으로 인하여 안보면에서뿐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역내 지역협력의 발전에 관건적 지역이다. 한편 동북아 경제협력의 발전은 한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폐쇄적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1. 東北亞 經濟協力과 韓國의 對應

한국은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동북아 경제협력의 발전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역내 무역관계 분석이 보여주듯이 한국의 대일의존도는 대미의존도와 함께 동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토의 불균형 발전 현상을 초래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두만강지역 개발도 동해를 중심으로 한 경제권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서해안지역을 소외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國土均衡發展과 連繫하여 한국은 동북아지역 국

가들과의 경제관계 확대를 推進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이룩하여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여 있으므로 역내 선진국 일본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우주공학 및 기초과학 분야의 고급기술을 상업화하는 데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수출주도에 의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이므로 세계경제가 보호무역주의화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동북아 경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동북아지역이 역외지역에 대하여 배타적 정책을 취하거나 保護貿易主義的 傾向을 보이지 않도록 警戒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동북아 경제협력의 대상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의 국토가 광활하고 인구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국 중앙정부의 역할과 함께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지방정부와의 경제관계를 수립함에 있어 민간단체를 적극 이용하는 등 多樣한 經濟協力 채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동북아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重層的 接近 方式을 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는 동북아 경제협력 문제가 기존 기구인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에서 보다 포괄적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역내국가들이 지역주의를 추구할 경우 한국은 이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역내국가간 상호의존도 심화에서 비롯될 제반 문제를 토의하는 수준

의 경제협약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협약체 형태의 역내지역기구는 미국을 비롯한 역외국가들의 동북아시아의 지역주의화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며, 21세기를 대비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질서 모색에 기여할 것이다.

2. 東北亞 經濟協力과 南北韓 經濟關係

중국의 개혁·개방과 러시아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은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지역에 마지막으로 남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인 北韓이 開放과 改革을 추진하여 시장경제체제로 편입된다면 동북아시아의 국제경제구도는 안정적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은 남북한 경제관계 발전이 통일을 향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동북아 경제협력의 단절된 고리를 한민족이 합심하여 이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의 대중국 경제관계 확대와 관련, 한국은 북한 인접지역이며 韓民族 集中 居住地域인 만주지방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의 대북한 배상금 지급문제와 관련, 한국은 일본의 대북한 배상금이 북한에서 경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일본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러시아 극동지역의 자원개발시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등 제3국에서의 南北韓 合作事業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

다. 넷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한국은 북한의 입장을 적극 지지할 필요가 있다.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향후 약 20년간을 사업기간으로 잠정적으로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중인 바, 한국은 한반도의 통일상황을 염두에 두고 동 계획이 統一韓國에 有利한 方向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위와 같은 남북한 경제관계 발전을 위한 迂廻的 接近方法이 사실은 次善策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남북한간 직접 경제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여 북한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고 궁극적으로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目 次

第I章 序論	1
第II章 東北亞 經濟協力에 대한 各國의 立場	5
1. 域內國家間 貿易關係	5
2. 域內 및 域外 貿易依存度	18
3. 東北亞 經濟協力에 대한 各國의 立場	22
第III章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33
1. 亞·太經濟協力閣僚會議	33
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36
3.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45
第IV章 結論	59
1. 東北亞 經濟協力과 韓國의 對應	60
2. 東北亞 經濟協力과 南北韓 經濟關係	62
參考文獻	67
附錄	70

第 I 章 序 論

냉전이후시대의 국제경제구조는 美國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안보구조와는 달리 美國경제력의 상대적 약화, 日本의 지속적 경제력 향상, 유럽공동체(EC)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多極化되고 있다. 세계경제는 통신 및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世界化되고 있으나, 동시에 「유럽공동체」의 형성,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의 설치,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자유무역지대」(AFTA) 추구 합의 등 地域主義化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세계경제의 변화추세 속에서 東北亞地域에서는 11억의 인구를 가진 中國이 제14차 당대회에서 ‘社會主義 市場經濟’를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등 개혁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러시아연방도 고르바초프 등장 이래 지속되어 온 사회주의 경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역내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과거 先進國(日本)과 中進國(韓國)으로 二分되어 있던 東北亞地域 경제구조가 先進國, 中進國, 開發途上國(中國, 러시아聯邦)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발전함으로써 역내국가간 相互補完性이 보다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

역내국가들은 경제발전을 위하여 대외부문, 특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역내 및 역외 국가와의 相互依存度 增大는 국가간 협력을 심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국제무대에서의 국가간 경쟁을 유발하고 무역마찰 등 국가간 갈등을 증폭시킬 소지도 안고 있다. 현재 東北亞地域 국가들은 相互依存度 增大에 따른 국가간 경제협력 문제를 雙務的 協議를 통하여 조정하고 있으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相互依存度の 效果的 管理를 위한 多者間 協力體制 구성에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韓國은 북방정책의 성공적 수행으로 1990년에 蘇聯과 국교를 정상화한데 이어 1992년에는 中國과 수교를 이룩하였다. 韓·蘇 및 韓·中修交는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국제정치적 개가임과 동시에 韓國이 東北亞地域에서 政治的 非正常的 關係로 인하여 경제관계를 맺을 수 없었던 두 나라와 경제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東北亞地域 전체 차원에서 볼 때, 韓·蘇 및 韓·中修交는 韓國과 中國 및 러시아 경제간 상호보완성을 이용한 域內 經濟協力構圖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반면 北韓은 부분적 개방의사만을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東北亞地域의 경제협력은 역내국가간 경제관계 심화를 통하여 역내 각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과 함께 경직된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北韓에게 지역경제협력에 동참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이와 같이 東北亞 經濟協力的 深化는 한반도 통일환경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아가 통일이후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인식하에 동북아 경제협력의 발전방향

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韓國의 對應을 摸索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客觀的 展望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동북아 경제협력을 「經濟統合」을 향한 움직임으로 국한하여 파악하려는 연구자세를 탈피하여 경제협력을 보다 넓은 의미에서 「兩者間 및 多者間 經濟關係」로 파악하고 이의 발전방향을 실증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전망하고자 한다.¹⁾

한편, 본 연구는 東北亞地域의 南·北韓, 日本, 中國 및 러시아 聯邦 등 5개국을 주 研究對象 國家로 한다. 東北亞地域의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東北亞地域을 地理的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이다. 廣義의 동북아시아는 북쪽으로 북극해, 동쪽은 태평양 연안, 남쪽은 남지나 해에 면하고 서쪽은 우랄산맥에까지 이르는 지역으로서, 韓國, 北韓, 日本, 中國, 대만, 홍콩, 몽골 및 러시아연방의 우랄산맥 동부지역 등이 포함된다. 또한 狹義의 동북아시아는 한반도(南·北韓)와 日本, 中國의 동북지역 및 러시아연방 극동지역을 포함한다. 東北亞地域 경제협력에 관한 문제는 현재 협의의 동북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경제협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북아 경제협력의 대상국가들인 韓國, 北韓, 日本, 中國, 러시아연방, 몽골 등의 國家政策이 일차적

1) 동북아지역에서는 황해, 발해, 동해 등을 중심으로 경제권을 형성하자는 구상이 학자들의 연구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상은 미래 지향적 차원에서 동북아지역에도 지역경제통합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볼 때 냉전의 잔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동북아지역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이와 같은 구상들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으로 중요하다. 한편, 中國과 러시아연방은 영토가 광활한 관계로 이들 국가의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입장을 분석함에 있어 中國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東北亞 經濟協力에 대한 입장은 中央政府의 役割 및 政策과 함께 매우 중요하다. 또한 동북아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데 있어, 동북아지역이 亞·太地域의 일부이며 역내국가들이 亞·太地域 국가들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美國과 「東南亞國家聯合」 등 중요한 域外國家들 역시 고려의 대상이 된다.

본 연구는 첫째, 동북아지역 각국의 域內 貿易依存度 및 각국의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立場 분석을 시도한다. 둘째, 동북아지역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현존 다자간 기구인 「亞·太經濟協力閣僚會議」와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의 활동을 분석한다. 셋째,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의 發展方向을 展望하고 이에 대한 韓國의 對應을 摸索하고자 한다.

第II章 東北亞 經濟協力에 對한 各國의 立場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역내국가간 경제관계와 각국이 처한 경제상황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나타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첫째, 역내국가간 무역관계 발전추세를 분석하였으며,²⁾ 둘째, 역내 및 역외 무역의존도 발전추세를 분석하였다. 셋째, 이와 같은 분석과 역내국가들의 경제상황 분석을 바탕으로 역내국가들의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입장을 도출하였다.

1. 域內國家間 貿易關係

가. 韓國

韓國은 1991년 116억달러의 적자(총무역액, 1500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1990년에 이어 연속적으로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곤란을 겪고 있다. 韓國의 1970~91년 기간 東北亞地域 역내국

2) 역내국가간 경제관계는 무역 및 직접투자 등 여러가지 상호작용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국가간 경제관계의 발전추세를 파악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며 중심을 이루는 것은 무역관계이다. 또한 동북아지역에는 과거 사회주의경제체제를 운용하였거나 현재에도 사회주의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국가들이 존재하는 바, 일관된 역내국가들간 경제관계 시계열 통계를 추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70~91년 기간 중 역내국가들간 경제관계 발전추세를 가장 일관되게 볼 수 있는 국제통화 기금의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무역통계를 이용하였으며 남북한 무역 통계는 통일원의 「남북교류협력동향」을 이용하여 보충하였다.

가와의 무역추세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다.³⁾ 첫째, 韓國의 東北亞地域 역내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표 1>에 보는 바와 같이 日本이다. 둘째, 日本이 韓國의 역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부터 1991년까지 기간동안 지속적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 한국 역내무역의 국가별 분포

(단위: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일 본	100	100	97.3	89.6	86.3	82.2
중 국	0	0	2.1	9.9	11.0	14.3
러 시 아	0	0	0.5	0.4	2.6	3.0
북 한 ⁴⁾	0	0	0	0	0.1	0.4
동북아*	39.2	29.6	22.5	21.2	25.7	26.9

출처: International Monetary Fund, *Direction of Trade*, 각년호.

* 韓國의 全體貿易 中 對東北亞地域 貿易 比重

셋째, 韓國과 對中國 무역은 1980년대 이래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액면에서도 1980년에 1억 9천 2백만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1991년에는 58억 1천 2백만달러를 기록함으로써, 1991년 기준 韓國의 총무역액에서 中國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9%를 기록하고 있다.

3) 동북아지역의 역내무역 의존도를 파악함에 있어 대상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연방, 북한 등 5개국가로 한다.

4) 남북한간 경제교류에 관한 통계는 통일원 자료를 참조하였다. 통일원, 「남북교류 협력 동향」(서울: 통일원, 1992).

넷째, 韓國과 러시아와의 무역은 금액면에서 1991년 기준 12억달러에 불과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韓國의 對北韓 무역이 1991년 기준 韓國의 총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하며 금액도 2억달러 정도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韓國의 역내무역 의존도는 1970년에 39.2%이던 것이 1991년에는 26.9%로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역내무역 의존도 감소추세는 <표 2>에 보는 바와 같이, 역내국가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對日本 무역증가율이 1985~90년 기간을 제외하고는 총무역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韓國은 1970년대에 대일 무역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日本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역내무역의존도도 감소하였다. 반면 韓國의 대북방 무역 확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역내무역의존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표 2>에 나타난 1970~90년 기간 韓國 무역의 平均增加率을 보면, 韓國의 역내무역 의존도가 1970년대에는 日本과의 무역증가율에 의하여 절대적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80년대에 들어 中國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中國과의 무역 신장율이 韓國의 역내 무역증가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韓國의 북방정책 수행은 수출다변화에 긍정적 기여를 하였을 뿐 아니라 東北亞地域 역내의존도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

대되는 바, 韓國은 점증하는 對東北亞地域 경제협력에 대하여 효율적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표 2> 한국의 무역신장율

(단위: %)

	70~75	75~80	80~85	85~90
세 계	29.5	23.3	8.6	15.7
일 본	23.8	17.3	5.8	18.9
중 국	0	0	38.1	21.7
러 시 아	0	0	3.5	54.5
북 한	0	0	0	203.9
동 북 아	23.9	17.9	7.5	19.6

출처: <표 1>과 같음.

나. 日本

日本은 1990년에 523억달러, 1991년에 782억달러 등 여타 선진국이 경기후퇴로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는 중에도 지속적 무역수지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표 3>은 日本의 1970~91년 기간 역내무역 발전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日本 역내무역의 특징은 첫째, 日本의 무역중 東北亞地域 역내국가들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91년 전 기간을 통하여 완만하지만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日本의 전체무역에서 역내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에 10.3%, 1991년에 11.1% 정도로 그다지 높지 않다. 이와 같은 사실은 日本經濟가 東北亞地域 국가로서의 역할보다는 世界的 役割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3> 일본 역내무역의 국가별 분포

(단위: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한 국	38.1	34.2	36.5	32.2	54.3	53.0
중 국	29.9	36.5	40.9	54.5	33.8	37.3
러 시 아	29.9	26.9	20.2	12.0	11.0	8.9
북 한	2.1	2.4	2.4	1.2	0.9	0.8
동북아*	7.2	9.1	8.5	11.4	10.3	11.1

출처: <표 1>과 같음.

* 日本의 全體貿易 中 對東北亞地域 貿易比重

둘째, 日本의 역내무역 대상국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韓國과 中國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日本의 역내무역 중 韓國과 中國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의 68%에서 1991년에는 90.3%로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韓國의 持續的 成長과 中國의 개혁·개방에 따른 經濟發展에 기인한 것이다.

셋째, 러시아聯邦의 日本의 무역대상국으로서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日本과 러시아간 무역이 日本의 역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에 29.9%이었으나, 1991년에는 8.9%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일·러간 무역관계는 금액면에서는 1970년에 8억달러에서 1991년에 54억달러로 증가하였으나, 日本의 對韓·對中貿易伸張 및 전체무역신장율에는 미치지 못한 결과 역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日本의 대러시아 무역은 1990년의 59억달러에서 1991년에 54억달러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는 바, 이 같은 추세는 최근 러시아聯邦의 체제전환과정에서 비롯된 어려움과 일·러간 북방도서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日本의 對北韓무역이 역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저조하며 최근 北韓의 경제난을 반영하여 그 비율이 더욱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주변국가들의 무역신장에 비하여 北韓의 무역신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위와 같은 日本의 역내무역관계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역내국가들과의 무역수지 상황이다. 다음 <표 4>는 日本의 역내국가와의 무역수지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 바, 日本의 전체 대외무역수지는 1975년과 1980년에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日本의 東北亞地域 역내무역수지는 1990년의 10억달러 적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기간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1991년의 경우 韓國을 제외한 역내 여타국가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한 日本은 對韓國 무역에서 얻어진 흑자로 인하여 전체 역내무역수지에서는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또한 日本은 최근 對中國 무역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는 바, 이같은 현상은 中國의 수입규제와 수출촉진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한 결과라 하겠다.

다음 <표 5>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1970~90년 기간 日本의 평균 무역신장율이다. 다음 표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첫째, 日本의 對韓國貿易 신장세는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표 4> 일본의 대외무역수지

(단위: 백만달러)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세 계	437	-2118	-10879	46673	52371	78259
한 국	589	939	2353	3015	5756	7707
중 국	315	729	763	6056	-5912	-5643
러 시 아	-140	457	923	1334	-807	-1201
북 한	-11	116	195	72	-122	-51
동 북 아	753	2241	4234	10477	-1085	812

출처: <표 1>과 같음.

것이다. 둘째, 對中國貿易 증가추세는 對韓國貿易 증가추세보다 높지만 1985~90년 기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中國의 천안문사태에 따른 단기적 무역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日本의 역내무역 신장율이 전반적으로 전체 무역 증가율보다 앞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은 위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日本이 점진적이지만 東北亞地域 국가와의 무역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日本의 역내무역 의존도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日本은 아직도 경제면에서 東北亞地域 국가로서의 역할보다는 세계적 역할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日本의 대외무역은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은 日本경제의 세계적 역할로 인하여 東北亞地域 경제협력에 주력하기보다 세계 시장을 중시하면서 역내무역이 점진적으로 증대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일본의 무역신장을

(단위: %)

	70~75	75~80	80~85	85~90
세 계	21.7	17.4	2.5	10.6
한 국	23.8	17.3	5.8	18.8
중 국	30.5	18.3	14.1	-1.0
러 시 아	24.5	10.3	-2.1	6.9
북 한	29.2	16.3	-5.4	2.1
동 북 아	26.6	16.0	8.3	8.6

출처: <표 1>과 같음.

다. 中國

中國은 1978년 開放政策을 실시한 이래 대외무역확대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왔다. <표 6>은 1970~91년 기간 中國의 東北亞地域 국가들과의 역내무역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 中國의 역내무역 의존도 발전추세를 살펴보면, 첫째, 中國의 역내국가들과의 무역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日本이다. 한편, 中國의 대일무역 의존도는 점진적으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韓國의 대중무역 확대가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中國의 역내무역 의존도는 증가되거나 혹은 감소되는 일관된 양상을 보이기 보다는 增加와 減少를 反復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내개혁과정에서 나타난 물가불안에 따른 정책기조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中國의 대러시아 무역관계가 역내무역에서 차지하는

<표 6> 중국 역내무역의 국가별 분포

(단위: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일 본	84.0	83.2	87.5	83.7	67.5	68.5
한 국	0	0	1.8	5.5	14.4	17.5
러 시 아	4.6	6.4	4.5	8.7	16.2	12.1
북 한	11.3	10.3	6.2	2.0	1.9	1.9
동북아*	28.5	38.3	29.1	33.9	22.1	24.1

출처: <표 1>과 같음.

* 中國의全體貿易中對東北亞地域貿易比重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中國의 대러 무역은 1991년에 39억달러로 1990년의 42억달러에서 감소하였지만 1985년 이후 중·러간 무역관계가 中國의 역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점은 중·러 양국이 1980년대 초반부터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하고 경제관계를 확대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中國의 對北韓 貿易이 역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中國의 對北韓 貿易이 금액으로 볼 때, 1970년 1억달러에서 1975년 4억 8천만달러로 급증한 이래 1990년에 4억 8천만달러를 기록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中國의 對北韓 무역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본적으로 기인한다.

다섯째, 中國의 對韓國 貿易이 역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에 불과 1.8%이었던 것이 1991년에는 17.5%를 기록하고 있어 韓國이 러시아聯邦을 제치고 역내에서 日本 다음가

는 무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中國은 對韓國 무역에서 1990년에 3억 5천만달러, 1991년에 5억 2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中國의 대한 무역물품이 주로 농산물에 집중되어 있어 韓國 농민들에 대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간에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의 시정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다음 <표 7>은 1970~90년 기간 中國의 무역신장율을 나타내고 있다. 中國의 무역신장 추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中國의 대외무역 증가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中國의 對日本 무역 증가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85~90년 기간에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中國의 역내무역 증가율도 中國의 전체무역 증가율 추세와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中國의 무역증가율 감소추세는 1990~91년 기간의 中國의 대외무역신장율이 13.3%, 東北亞地域 역내무역신장율이 22.1%를 기록함으로써 반전되고 있다. 따라서 中國의 대외무역은 천안문사태로 인한 부진에서 벗어나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러시아聯邦

러시아聯邦의 대외무역은 1990~91년 기간 무역액이 감소하는 등 국내경제개혁에 따르는 혼란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 8>은 러시아聯邦의 역내무역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

<표 7> 중국의 무역신장을

(단위: %)

	70~75	75~80	80~85	85~90
세 계	24.5	22.6	12.4	10.7
한 국	0	0	38.1	21.7
일 본	30.5	18.3	14.1	-1.0
러 시 아	36.8	10.1	28.6	14.6
북 한	28.6	6.8	-6.7	0.3
동 북 아	30.4	17.1	15.4	2.1

출처: <표 1>과 같음.

<표 8> 러시아연방 역내무역의 국가별 분포

(단위: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일 본	82.7	85.5	83.4	60.6	47.7	44.7
중 국	4.8	9.0	8.6	28.7	34.5	33.1
한 국	0	0	0.9	0.8	7.3	10.1
북 한	12.4	5.5	7.1	9.9	10.4	12.1
동북아*	11.6	11.8	8.6	7.3	10.7	11.9

출처: <표 1>과 같음.

* 러시아의全體貿易中對東北亞地域貿易比重

다. 첫째, 러시아聯邦의 東北亞地域 국가들과의 무역관계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日本이며, 1970~91년 기간 중 지속적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러시아聯邦의 對中國貿易이 역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새로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韓國과의 무역관계 확대에 의하여 對韓國貿易이 역내무

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1년에는 10%를 상회하고 있다.

셋째, 러시아聯邦의 對北韓貿易이 역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 기간에 걸쳐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넷째, 러시아의 역내무역 의존도는 전 기간에 걸쳐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러시아는 東北亞地域 국가들과의 역내무역 의존도가 증가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유일한 역내국가라 하겠다.

러시아의 역내무역 발전 추세를 종합적으로 볼 때, 러시아의 대일무역 의존도 감소추세는 전체적 역내의존도의 증감없이 러시아가 대중·한 무역관계를 확대하게 됨에 따라 대일무역의 상대적 중요성이 약화되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日本의 상대적 중요성 약화는 러시아가 어려운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日本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접국가인 中國 및 새로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韓國과의 경제관계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 北韓

北韓은 무역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北韓의 東北亞地域 역내무역 의존도를 정확히 추적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아래 도표는 국제통화기금의 자료와 통일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⁵⁾ 北韓의 1970~91

5) International Monetary Fund, *Direction of Trade*, 각년호; 통일원, 「남북교류협력 동향」(서울: 통일원) 참조.

년 기간의 전체 및 東北亞 역내국가와의 정확한 무역액을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아래 <표 9>를 통하여 北韓의 역내무역 의존도 추이를 살펴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北韓의 역내무역 의존도 추세를 분석하여 보면, 첫째, 北韓의 중요한 무역대상국은 전 기간에 걸쳐 中國과 러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北韓의 역내무역 중 러시아와 中國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에 80.9%였으나 1991년에는 76.1%로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다음으로 중요한 北韓의 무역대상국은 日本이다. 北韓의 대일무역의존도는 약 20%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日本이 경제교류면에서 北韓과의 관계를 지속하여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셋째, 北韓의 域內貿易이 東北亞 전체 역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미만으로 북한이 東北亞地域 무역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9> 북한 역내무역의 국가별 분포

(단위: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일 본	18.9	27.6	34.7	26.5	19.9	17.5
중 국	39.1	52.6	41.1	29.6	22.1	23.3
러 시 아	41.8	19.7	24.2	43.8	57.0	52.8
한 국	0	0	0	0	1.0	6.3

출처: <표 1>과 같음.

2. 域內 및 域外 貿易依存度

가. 域內貿易 依存度

東北亞地域의 역내무역 의존도 발전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북아 각국의 역내무역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은 1970~91년 기간 東北亞 各國의 역내무역이 동북아지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 주고 있다. 첫째, 韓國의 比重이 1990년대에 들어 크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日本의 比重은 전 기간에 걸쳐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일본이 역내에서 가장 큰 무역국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일본의 역내무역 의존도가 10% 정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무역이 동북아지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높으나 일본의 전체 무역에서 동북아 역내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대동북아 지역 무역을 여타지역보다 덜 중요시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 일본의 참여를 배제한 동북아 경제협력은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中國의 比重은 1985년을 제외하고는 20% 정도를 보이고 있어 동북아지역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러시아의 비중은 지속적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한국의 비중이 높아진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北韓의 比重도 역시 지속적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비중 또한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東北亞 各國의 역내무역 비중 발전추세를 종합적으로 보면, 일본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며, 한국의 비중은 1990년대에 들어 중국보다 높게 나타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비중은 1991년 기준 8%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1970~91년 기간 중에 나타나고 있는 감소추세와 러시아의 혼란한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북한의 비중은 전 기간에 걸쳐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동북아 경제 협력에 있어 北韓의 役割은 制限的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10> 동북아 각국의 역내무역 비중

(단위: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한 국	18.0	15.9	17.7	16.1	26.8	27.2
일 본	44.7	45.2	45.9	43.6	41.6	41.0
중 국	16.6	20.3	21.7	29.4	20.3	21.9
러 시 아	16.0	14.5	11.4	8.9	9.5	8.0
북 한	4.8	4.1	3.3	2.0	1.8	1.9

출처: <표 1>과 같음.

<표 11>은 東北亞地域 역내무역이 東北亞地域 국가들의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東北亞地域 역내무역 의존도 발전 추세의 특징은 첫째, 東北亞地域 역내무역 의존도는 1991년에 15.8%를 기록함으로써 최근에 와서야 15%대를 상회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역내무역 의존도가 1970~91년 기간에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

다. 이와 같은 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東北亞地域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분류되기에는 아직 이르나 전반적 추세를 살펴볼 때 장기적으로는 상호의존도의 지속적 증가로 인하여 보다 결속된 경제권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1> 동북아시아역 내무역 의존도

(단위: %)

1970	1875	1980	1985	1990	1991
11.4	13.6	11.9	14.7	14.5	15.8

출처: <표 1>과 같음.

나. 對美國 貿易依存度

東北亞地域은 前述한 바와 같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일부이며 역내국가들은 美國을 위시한 환태평양 국가들과 긴밀한 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東北亞地域 국가들의 역외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美國이다. 다음 <표 12>는 역내국가들의 美國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보여주고 있는 바, 그 특징은 첫째, 역내국가들 중 대미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韓國과 日本이며 韓國의 대미무역의존도는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日本은 25%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둘째, 中國의 대미무역의존도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東北亞地域 전체의 대미무역의존도는 <표 10>에 나타난 東北亞地域 역내의존도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역내국가들의 대미무역 의존도는 東北亞地域 국가들이 美

國을 배제한 상태에서 지역주의적 무역정책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2> 역내국가들의 대미무역 의존도⁶⁾

(단위: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한 국	37.5	27.4	23.1	26.6	24.7	22.0
일 본	28.2	19.1	19.4	29.5	26.4	25.3
중 국	0	4.0	13.8	11.6	16.9	18.7
러 시 아	2.4	8.0	3.2	3.1	3.9	4.7
동 북 아	22.6	16.7	16.6	21.9	21.9	21.5

출처: <표 1>과 같음.

다. 對東南亞國家聯合 貿易依存度

東北亞地域國家들의 역외무역에서 美國과 유럽공동체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다. 특히 「동남아국가연합」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일부로서 東北亞地域의 경제협력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음 <표 13>은 東北亞地域의 대동남아국가연합 무역의존도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東北亞地域의 역내 무역의존도와 대동남아국가연합 무역의존도 추세를 비교하여 보면 「동남아국가연합」이 東北亞地域과 밀접한 무역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970~91년 기간동안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동남아지역의 東北亞 무역대

6) 북한은 미국과 공식적인 무역관계가 없으며 확인된 무역액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북한의 대미무역 의존도는 표에서 제외하였다.

상으로서의 중요성은 東北亞地域이 지역주의적 차원에서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 할 경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東北亞地域 역내 무역의존도의 증가추세와 대동남아국가연합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同時에 增加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東北亞地域의 경제협력 강화가 동지역의 대동남아국가연합 경제협력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東北亞와 東南亞地域은 공히 경제적 역동성을 보이고 있는 바 각 지역의 발전은 상호적으로 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3> 대동남아국가연합 무역의존도

(단위: %)

1970	1875	1980	1985	1990	1991
7.9	8.9	10.4	7.5	9.0	9.7

출처: <표 1>과 같음.

3. 東北亞 經濟協力에 대한 各國의 立場

가. 韓國

韓國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을 통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 新興工業國의 대열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韓國경제는 고도성장 이후에 나타난 노사간 갈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및 이에 따른 수출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수출의 감소, 중진국 수준에 맞는 소득

분배구조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사회불안,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과학기술 투자에 따른 高度産業構造에로의 이행 부진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경제적 측면을 보면, 韓國은 과거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던 신발, 섬유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분야에서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국제경쟁력이 하락되었으며,⁷⁾ 이에 따라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국가 및 中國 등 후발 개발도상국에게 국제시장에서의 우위를 빼앗기고 있다. 또한 韓國의 지속적 경제발전 및 자국시장에 대한 침투를 우려하고 있는 선진국은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부문에서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으며 반도체 등 韓國의 수출상품에 대하여 심한 견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역내국가와의 경제협력에 대한 韓國의 입장은 첫째, 역내 中進國으로서 先進國과 開發途上國 사이의 교량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韓國은 中國 및 러시아聯邦에 대하여는 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의 자본주의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 이바지하려 하고 있다. 또한 韓國의 경제발전은 후발 개도국에 적용할 수 있는 경제발전모델을 제시하여 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둘째, 韓國은 東北亞地域 경제협력 활성화가 역내 유일한 선진국 日本의 역내국가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韓國에 대한

7) 한국의 동북아시아 域內國家와의 輸出競爭力 비교에 의하면, 한국은 일본 및 중국에 대하여 劣位的 補完關係, 러시아 및 북한에 대하여는 優位的 補完關係에 놓여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鄭永祿, 「東北亞地域 貿易構造와 域內輸出競爭力 比較」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참조.

기술이전을 활성화하는 등 韓國의 산업고도화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셋째, 韓國은 역내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東北亞地域 경제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北韓이 개방의 길로 나서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韓國은 北韓의 개방 및 東北亞地域 경제협력 활성화가 南 北韓 긴장완화 및 통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 日本

역내국가중 유일한 선진국인 日本은 고도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타 선진국과는 달리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日本은 무역상대국들(특히 美國)과의 무역흑자로 인한 경제마찰을 해소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日本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하여 노동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자원빈국으로서 해외로부터의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원하고 있다.

日本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일찍이 노동집약적 산업 및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을 동남아시아지역에 이전하였으며, 美國과의 통상마찰을 약화하기 위하여 美國에 현지투자 및 합작공장을 설립하는 등 준비를 하여왔다.

日本은 東北亞 經濟協力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日本은 東北亞 地域에 대한 새로운 직접투자를 통하여 東北亞地域에서 日本을 정점으로 하는 「국제분업구조」가 정착되어 자국의 인접지역인

東北亞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日本은 韓國과 마찬가지로 자원빈국이므로 中國과 러시아聯邦의 풍부한 자원개발을 통하여 자원을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

셋째, 日本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美國을 비롯한 환태평양지역과의 경제관계 확대가 日本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이와 같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日本의 關東 및 關西地域 등 태평양에 면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편중된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日本海에 접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日本은 東北亞 經濟協力이 日本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넷째, 단기적으로 볼 때, 日本은 기존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을 소외하면서까지 東北亞地域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日本은 東北亞地域 역내국가들과의 경제관계 강화를 통한 東北亞地域의 평화적 상호의존관계 심화가 자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中國

中國의 경제개혁정책은 농민이 전체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농업부문에서 시작되어 도시 및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등 전산업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또한 中國은 외국의 자본과 선진기술 도입이 中國經濟 발전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하에 1978년부터 대외 경제개방을 시작하였다.⁸⁾

이와 같은 中國의 대외 개방정책은 中國의 전지역을 일시에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연안지역을 경제특구와 경제개방구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개방한 이후 개방의 경제적 효과가 증명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대외 개방지역을 내륙지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개방의 성공으로 인한 경제발전은 中國 공산당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게 되었으며 이에 자신감을 얻은 中國 지도부는 '社會主義 市場經濟'를 공식 채택하는 등 경제개혁과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中國 경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⁹⁾

첫째, 中國은 1991년중 211억元の 재정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영 기업의 적자 누적과 국민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에 대한 국가보조 등 사회주의 경제의 모순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남아 있다. 둘째, 中國은 중요한 무역상대국인 美國과의 통상마

8) 申相振, 「中國의 改革 開放·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pp. 11~14 참조.

9) 現代經濟社會研究院, 「中國 政治·經濟의 懸案과 展望」(서울: 現代經濟 社會研究院, 1992), pp. 81~89 참조.

찰을 해소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中國의 대미 무역흑자액은 1991년 기준 127억 달러로 美國의 3번째 적자 대상국이다. 따라서 美國은 中國에 대하여 지적소유권 및 특허권의 보호 등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며 中國이 불공정 무역거래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셋째, 中國경제 발전에 있어 또 하나의 과제는 물가 불안의 효과적 관리이다. 中國경제는 1988년의 급격한 인플레이에 따른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으나 최근 들어 또 다시 주요 35개 도시지역에서 노동자 생활비가 10.9%의 상승율을 보이면서 도시 지역의 인플레이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넷째, 中國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지역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간 소득격차 및 빈부격차는 中國경제 발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섯째, 中國의 개방정책은 외자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바, 외채 문제가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91년말 현재 中國의 외채는 600억달러에 달하며 中國은 세계 10대 채무국 대열에 진입하여 있다. 中國의 외화보유고와 무역흑자를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외채상환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외국자본의 지속적 유입은 中國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中國은 외채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차관보다는 직접투자를 유치하려 노력하고 있다.

한편, 東北亞 經濟協力の 주 대상지역으로 주목되고 있는 中國의 東北地域은 러시아聯邦 및 北韓과 인접하고 있으며 경공업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遼寧省

은 중화학공업의 중심지이다. 따라서 中國 동북지역은 저임노동력과 천연자원이 풍부하므로 역내 중진국 및 선진국과의 합작이 유망한 지역이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자본 및 기술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中國은 東北亞地域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하여 첫째, 中國 東北三省의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中國은 지난 10여년간의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을 통하여 남부지방과 연안지역의 경제개발에 성공하였고 이를 내륙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中國은 東北亞地域 역내국가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동북지역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

둘째, 中國의 東北亞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豆滿江을 이용한 東海로의 進出이다. 이와 같은 中國의 입장은 中國이 「국제연합개발기구」가 주관하고 역내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셋째, 中國은 東北亞 경제협력의 발전이 러시아聯邦과의 변경무역 활성화 및 러시아 극동지역의 자원 활용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라. 러시아聯邦

러시아聯邦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개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聯邦은 蘇聯邦의 해체와 개혁과정에서의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인하여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서

방으로부터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러시아聯邦의 극동지역은 연해주 지방, 하바로프스크 지방, 아무르주, 사할린주, 캄차카주, 마가단주, 야쿠트자치공화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621.6만Km²로서 한반도의 28배에 이른다. 그러나 이 지역의 인구는 약 800만명 정도로서 막대한 天然資源의 賦存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이 안된 형편이다. 또한 혹한이 계속되는 기후조건으로 인하여 凍土가 많으며, 열악한 수송조건은 경제개발을 지연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東北亞 經濟協力の 대상지역으로서 러시아聯邦 극동지역은 자원의 공급지로서 중요하다. 그러나, 이 지역의 특수한 기후와 사회간접자본의 미비는 이 지역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부존자원의 개발에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聯邦의 극동지역은 역내 선진국으로부터 자본 및 기술의 유입이 절실한 실정이지만 日本은 북방4개도서 반환문제와 연계하여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 北韓

北韓은 지난 40여년간 생산수단의 국유화, 의사결정의 중앙집권화 및 계획·지령에 의존하는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체제하에서 자력갱생에 의한 민족경제 건설을 추구하여 왔다. 北韓은 이러한 발전전략하에 대내적으로는 외연적 성장을 추구하고 대외적으로는 국내경제 건설에 있어 국내조달이 불가능한 자원을

도입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무역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대내 지향적이고 폐쇄적 경제구조와 중공업 위주의 공업화전략은 비효율적 자원이용과 北韓경제의 기술적 낙후를 초래하였으며 상품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장기적 경제침체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최근 北韓에 대한 러시아聯邦의 에너지 공급 감소 및 中國과 러시아의 硬貨決濟要求는 北韓의 경제난을 가중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은 서방으로부터의 자본 및 기술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¹⁰⁾

北韓은 東北亞경제협력과 관련, 두만강지역개발에 적극적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北韓은 「국제연합개발기구」 주관의 두만강지역개발에 정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991년 12월 나진·선봉 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할 것을 정무원 결정으로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北韓의 최근 변화는 외화부족에 따른 원자재 공급 부족사태를 부분적 개방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東北亞 경제협력에 대한 입장은 외화 및 에너지 부족문제 해결 등 단기적 이익 추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바. 各國立場의 綜合評價

위와 같은 東北亞 經濟協力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동북아 경제협력 구도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것이다. 첫째, 선진국

10) 尹德熙·金圭倫 共著,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 協力 中心」(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1), pp 25~28 참조.

日本은 世界的 經濟力으로 역내 경제협력의 추진에 있어서도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일본은 1991년 기준 역내 무역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바,¹¹⁾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에 있어 일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중진국 韓國의 經濟的 影響力은 重要하나 中國의 부상으로 인하여 重要性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인구나 국토면적 등 제분야에서 볼 때 大國인 中國의 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은 그 市場의 規模와 潛在力으로 인하여 인접 동북아지역은 물론 아·태지역 및 세계경제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러시아연방은 經濟改革의 不確實性 및 政治狀況의 不安定으로 인하여 동북아지역에 대한 경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정부보다는 극동지역 지방정부의 역할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北韓은 制限된 開放을 추진하고 있으나 역내 및 域외국가들의 적극적 협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지속적 경제난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영향력도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냉전시대 동북아 경제협력이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면, 냉전이후시대의 域내 경제협력은 선진국 일본, 중진국 한국, 그리고 개발도상국 中國이 함께 주도하는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동북아지역에서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이와 같은 협력 구도는 域內國家들간 相互補完性을 과거보다 효율적으로 이용

11) <표 10> 참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개도국 중국의 발전은 중진국 한국에 대하여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한편 역내국가들은 냉전이후시대에 있어 국가간 경제교류 강화가 자국의 경제발전 및 안보에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동북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세계적 추세에 따른 동북아지역국가들의 經濟優先主義는 동북아지역 국제질서가 脫軍事化되어 地域安보에 대한 威脅要因을 減少시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국가간 經濟 競爭의 深化는 國家間 葛藤을 增加시킴으로써 지역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협력 심화에 따른 제반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多者間 地域機構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 및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서 부분적으로 조정되고 있는 바, 다음 장에서는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국제기구 활동의 분석을 통하여 동북아 경제협력의 발전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第Ⅲ章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東北亞 經濟協力和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다자간 협의체로는 「亞·太經濟協力閣僚會議」(APEC)와 「豆滿江地域開發計劃」(TRADP)를 들 수 있다.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는 東北亞地域國家들을 포함한 환태평양국가들간의 경제협의체로서 東北亞地域 보다 넓은 지역을 총망라하고 있으며 지역주의적 성격보다는 「개방된 지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또한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은 「國際聯合開發機構」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두만강 인접지역에 대한 개발프로젝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東北亞地域과 관련된 경제협의체들의 활동을 분석하고 앞의 장에서 분석한 東北亞地域의 무역의존도 상황을 고려하여 東北亞 경제협력의 발전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1. 亞·太經濟協力閣僚會議

가. 背景 및 現況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에 관한 구상은 1965년 日本의 고지마 교수에 의하여 ‘태평양자유무역지대(PAFTA)’안이 처음 제기된 이래 美國에서는 1979년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태평양무역개발기구(OPTAD)’안이 제기되었으며, 日本에서는 1980년 「환태평양연대연구그룹」이 ‘환태평양연대구상’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구상은 주로 「태평양무역발전회의」(PAFTAD)를 통하여 학자

들간의 논의 대상차원에서 연구되고 있다.

1980년 이래 學界, 企業界 및 官界의 대표가 모여 태평양지역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토의를 계속하고 있는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가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의 개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¹²⁾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1980년 호주에서 처음 회의를 개최한 이래 아·태경제협력체 추진과 관련된 연구 및 토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후 1989년 濠洲의 호크 수상이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였고, 이에 韓國은 즉각적 환영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어 美國의 베이커 국무장관이 호크구상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東南亞國家聯合 擴大 外相會議」에서도 호크구상을 토의한 후 회의개최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1989년 11월 아 태지역 협력을 위한 최초의 정부간 협의체인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가 역내 1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호주의 캔버라에서 개최되었다.

이후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는 연례회의로 정착되어 1990년 제2차 회의가 싱가포르에서, 1991년 제3차 회의가 韓國에서 개최되었다. 한국회의에서는 중국, 대만 및 홍콩이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¹³⁾ 금년에 태국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상설사무국 설치에 합의하는 등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가 지역협력

12) 李東輝, 「아시아·태평양 地域協力和 韓國의 對應方案」(서울: 外交安保 研究院 1991), pp. 28~33 참조.

13) 「亞·太經濟協力閣僚會議」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및 동남아국가연합 6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르네이) 등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체의 기능을 강화하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는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이 지역주의에 입각한 활동보다는 開放的이고 無差別主義的(non-discriminatory)인 경제거래의 자유화 및 확대에 그 중점이 두어질 것으로 보인다.¹⁴⁾

나. 亞·太地域協力の 制約 및 促進要因

학자들의 연구과정에서 제기된 아·태지역협력체 설립에 대한 촉진 및 제약요인들은 東北亞 經濟協力の 발전방향을 전망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촉진 및 제약요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촉진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세계경제의 역동성이 대서양지역에서 太平洋地域으로 移動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따라 환태평양지역의 상호의존성 증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둘째, 타 지역에 생성되거나 생성되고 있는 지역기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역내국가들간의 相互補完的 經濟構造의 存在이다.

다음으로 제약요인을 보면, 첫째, 日本의 의도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우려이다. 日本의 ‘大東亞共榮圈’ 구상을 기억하고 있는 역내 국가들은 日本이 주도하는 지역경제협력체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다. 둘째, 아·태지역은 그 지리적 범위가

14) 서울大學校 世界經濟研究所, 「新國際秩序와 東北亞 經濟協力」(서울: 서울大學校 世界經濟研究所, 1992), pp. 187~88 참조.

너무 광범위하며 역내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발전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셋째, 美國과 日本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양국이 「세계적 역할」보다 「지역적 역할」을 더 중요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위와 같은 촉진요인과 제약요인은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라는 開放的 地域主義를 표방하는 협의체 형태의 기구를 설립하게 한 것으로 분석된다.

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가. 背景 및 現況

豆滿江地域開發은 동북아지역에서 최초의 다자간 경제협력 사업이 될 가능성으로 인하여 東北亞 역내국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두만강지역은 經濟開放 改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中國, 사회주의 경제의 자본주의로의 전환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러시아聯邦, 그리고 制限的 開放을 통하여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해 보려는 北韓 등 경제적 장래가 불확실한 국가들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이다. 이와 같은 接境國家들의 불확실성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들의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로의 편입과 관련하여 東北亞 경제권의 장래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두만강지역개발에 관한 계획수립은 관련국가의 협조하에 「國際聯合開發機構」(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가 주관하고 있다. 따라서, 동 개발사업의 성공 여부는 냉전이후 시대 유엔의 역할강화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두만강지역개발은 南·北韓이 「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추진되고 있어서 韓國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두만강지역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國際聯合開發機構」가 「豆滿江地域開發計劃」(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TRADP)을 東北亞地域 4대 協力事業 중의 하나로 선정하면서 고조되었다.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은 1991년 7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國際聯合開發機構」 주관의 동북아시아 협력에 관한 회의에서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두만강지역의 개발에 관한 국제적 관심은 中國의 길림성 「아시아태평양연구소」와 美國의 하와이 「동서연구센터」가 1990년 7월 中國 장춘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東北亞 地域 經濟發展을 위한 國際協力’이라는 주제하의 국제학술세미나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이후 上記한 몽골회의에서 「國際聯合開發機構」 주관의 東北亞 地域 協力事業으로 선정되었다. 이어서 1991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國際聯合開發機構」 주관의 2차 公式會議에서는 「國際聯合開發機構」가 1991년 8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두만강지역에 대한 조사를 거쳐 작성한 調查報告書가 提出되었다.¹⁵⁾ 이에

15) M. Miller, A. Holm, and T. Kelleher,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Mission Report,"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1991.

따라 평양회의에서는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의 전반적 타당성 조사 및 연구기반 마련을 위하여 18개월간(1992. 1~1993. 6)의 投資前段階(Pre-investment Phase)를 설정하고 실천계획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國際聯合開發機構」는 평양회의의 합의에 따라 1991년 12월 「豆滿江地域開發計劃」추진을 위하여 82만 5천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事前準備支援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국에 제출하였다.¹⁶⁾

國際聯合開發機構는 1992년 2월 서울에서 「豆滿江地域開發計劃」에 관한 제1차 「계획관리위원회」(PMC) 회의를 개최하여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협의하였다. 1992년 10월 9~11일 사이 북경에서 열린 제2차 「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그 동안 옵서버로 참여하여 왔던 러시아聯邦이 정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豆滿江地域開發計劃」에는 韓國, 北韓, 中國, 러시아聯邦 및 몽골이 정회원국으로, 日本이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동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두만강 접경 경제지역을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¹⁷⁾

첫째, 國家主權에 대한 尊重

둘째, 港口, 鐵道, 道路, 空港 등 基幹産業 建設에 필요한 敷地의 提供

16)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Preparatory Assistance Document," UNDP, December 1991.

17) UNDP, "Northeast Asian Nations Sign Agreement Launching Tumen River Development: China, Mongolia, Russia, North and South Korea Agree on Next Phase of Co-operation," UNDP, October 1992.

셋째, 國際的 調整機構를 통한 計劃의 運營

넷째, 投資留置를 위한 최대 노력 경주 동 회의의 참가국들은 또한 경제, 산업, 교통 및 통신 분야의 타당성조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國際聯合開發機構」는 동 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350만달러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계획관리위원회」는 1993년 말까지 참가국 정부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다.

나. 豆滿江地域 開發代案

지금까지 제의된 두만강지역개발에 관한 대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2년 2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對象地域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3개의 대안이 제시되었다.¹⁸⁾

- ① 두만강경제지역(Tumen River Economic Zone: TREZ): 선봉, 훈춘, 포시에트를 연결하는 小三角地域
- ② 두만강경제개발지구(Tumen Economic Development Area: TEDA): 블라 디보스톡, 청진, 길림성을 포함하는 大三角地域
- ③ 東北亞地域개발지구(North East Asian Regional Development Area: NEARDA): 두만강지역개발과 관련하

18)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First Meeting of Programme Management Committee, CONCLUSIONS," February 1992, p. 3 참조.

여 천연자원의 공급, 산업의 발전, 하부구조의 개선 및 역
내 무역의 확대효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東北亞地域

둘째, 두만강지역의 開發形式과 관련하여 「國際聯合開發機
構」는 조사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¹⁹⁾

- ① 접경국가 3국이 獨自的으로 경제특구를 개발하되 정책과
행정의 조정을 추진하는 방법
- ② 3국이 경제특구를 상호 인접지역에 개발하고 각국이 行政
적으로 협조하는 방법
- ③ 3국이 특정지역을 경제특구로 共同 指定·開發하고 공동운
영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법

셋째, 두만강지역개발에 대한 參與主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상정할 수 있다.

- ① 두만강지역 접경국가인 中國, 北韓, 러시아聯邦만이 참여
하는 경우
- ② 접경국가 3국과 韓國, 日本, 몽골이 참여하는 경우
- ③ 접경국가 3국, 韓國, 日本, 몽골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경우

위와 같이 대상지역, 개발형식 및 참여주체 등 세가지 차원의
문제 설정에 따라 두만강지역개발의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보
이며, 두만강지역의 개발방식은 위의 대안들의 결합형태에 따
라 수많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19) M. Miller, A. Holm, and T. Kelleher,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Mission Report,"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1991.

다. 關聯國家의 立場

두만강지역개발은 한정된 지역에 대한 개발프로젝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접경국가인 北韓, 中國, 러시아 聯邦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접경국가인 韓國과 몽골은 현재 「豆滿江地域開發計劃」에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의 입장도 중요하며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는 日本은 역내 유일한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첫째, 北韓은 두만강지역개발과 관련하여 나진 선봉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1991년 12월 정무원 결정으로 발표하는 등 두만강 지역 개발에 積極性을 보이고 있다. 한편 北韓은 「國際聯合開發機構」에 의한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추진이 어렵게 될 경우 독자적으로라도 나진 선봉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두만강지역개발은 투자에 의한 可視的 실익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⁰⁾ 北韓의 두만강 개발에 대한 적극적 태도는 외화부족에 따른 원자재 공급 부족사태를 부분적 개방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것으로 단기적 이익 추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 Haeng Ho Li,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Development of Tumen Delta,"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velopment of Tumen Zone and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發表論文, July 1992 (中國 長春).

둘째, 中國은 北韓·러시아聯邦과 달리 두만강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두만강을 이용한 東海進出에 관한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두만강지역의 교통 및 수송망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두만강을 이용한 동해진출에 관한 中國측 구상의 예를 들면, 첫째, 두만강을 경유하여 바지선을 사용할 수 있는 항구 및 강 입구에 포구를 개발하거나 강을 준설하여 대규모 선박들이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둘째, 北韓이나 러시아聯邦으로부터 항구를 임대 또는 조차하거나 北韓의 해안부근 小島에 항구를 건설하는 방안, 셋째, 中國으로부터 러시아聯邦 영토를 가로질러 동해에 이르는 운하를 건설하는 방안 등이다. 이와 같이 中國은 두만강지역개발이 中國의 두만강을 이용한 동해로의 진출과 이에 따른 동북3성의 經濟活性化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러시아聯邦은 소삼각지역 위주의 두만강 개발에 반대하고 있으며, 대삼각지역을 두만강 개발 대상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다. 러시아聯邦은 두만강 인접지역인 핫산만의 개발과 관련, 핫산만의 입지조건은 대형선박들을 수용하는 항구 건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지만 동 지역에 대규모의 항구를 건설할 경우 生態的인 均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聯邦은 中國을 통한 유럽~아시아대륙 연결철도 건설이나 北韓의 항구 개발은 두만강 인접 러시아 영토인 프리모르스키 지역을 소외시킬 수 있으며 러시아聯邦의 기존 항구인 블라디보스톡이나 나호트카의 상대적 重要性이 弱

化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러시아聯邦의 태도는 러시아聯邦이 금년 2월의 제1차 「계획관리위원회」회의에는 정회원국이 아닌 옵서버로 참여하다 최근 북경에서 개최된 제2차 「계획관리위원회」회의에 정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聯邦은 두만강지역개발이 두만강접경지역인 포시에트지역보다는 既存 極東地域 中心地인 블라디보스톡이나 하바로프스크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韓國은 두만강개발을 통하여 中國 동북3성 및 러시아聯邦 극동지방과의 경제협력이 더욱 원활히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韓國은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北韓이 두만강 개발사업을 통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 경험을 축적하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섯째, 日本은 두만강지역개발에 대하여 옵서버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관망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나 두만강지역개발이 경제성이 있고 가시화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日本은 두만강지역이 개발될 경우 자국의 서해안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두만강지역을 경유한 유럽으로의 수송로 이용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몽골은 내륙국가로서 두만강지역개발이 자국의 東北亞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교 역할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라. 展望 및 評價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은 비록 소지역적 차원의 개발프로젝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東北亞地域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는 다자간 협력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동 계획의 발전방향이 東北亞 경제협력의 앞날을 예상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편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은 유엔산하 기관인 「國際聯合開發機構」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간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므로 1993년 하반기에는 타당성 조사를 결과로 한 실천적 계획서가 나올 예정이다. 현 시점에서 보면,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은 소삼각 중심의 공동개발 방식 형태를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서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東北亞 경제협력과 관련,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은 東北亞地域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개발프로젝트의 성격을 가지지만 역내국가들이 정부차원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완성된 계획서에 대한 관계국 고위정부관계자의 승인을 얻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東北亞地域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정부차원의 다자간 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은 재원조달문제와 관련 국제금융기관 및 역외국가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바, 동 계획은 개방성을 유지할 것이다. 이와 같은 「豆滿江地域開發計

劃」의 성격은 東北亞地域 국가들이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역외국가들과의 협력을 도외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은 향후 약20년간을 사업기간으로 잠정적으로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중인 바, 동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東北亞 경제협력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논의는 東北亞 경제협력의 발전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은 中國과 러시아聯邦 등 과거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였으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 있는 국가들과 北韓과 같이 아직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국가의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므로 동 계획의 성공여부는 동구 개혁·개방의 성과와 더불어 주목되고 있다.

다섯째, 「國際聯合開發機構」가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냉전이후시대에 있어 국제연합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제연합의 기능 확대와 관련한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3.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은 단기적으로는 양자간 경제관계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역내 국가들간 경제문제를 다자간 접근방법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움직임

임이 구체화될 수 있으나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경제통합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 兩者間 經濟關係 深化

東北亞 경제협력은 단기적으로 보면 우선 양자간 경제관계가 심화될 것이다. 이는 II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역내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음에 기인한다. 한편, 역내 국가들간 무역관계 성장속도는 持續的인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추세는 1990년대에 가속화될 전망이다.

첫째, 역내국가들의 경제가 상호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내국가들은 역내 경제관계의 확대가 각국 경제발전의 역동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韓國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려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의 이전이 필요한 실정이다. 中國과 러시아聯邦은 경제개발과정에서 韓國과 日本의 자본 및 기술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日本과 韓國은 자원빈국으로서 中國과 러시아聯邦의 자원을 이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내국가간 자원 및 생산요소상의 높은 보완성은 지역전체가 새로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둘째, 韓國이 북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이룩한 한·소 및 한·중 수교는 東北亞地域의 양자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냉전시대에는 불가능하였던 한·러 및 한·중간 경제교류가 가능해짐으로써 東北亞地域 양자간

경제관계는 더욱 더 활발해지고 있다.

셋째, 日本은 美國과의 무역에서 대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지속적 통상마찰을 빚고 있는 바, 새로운 시장 개척은 日本경제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日本의 입장과 역내 개발도상국의 투자 및 기술이전 요구가 합치되어 역내 경제관계가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 역내 경제관계 심화가 예상된다.

넷째, 中國은 개혁·개방 심화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채택으로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中國의 시장 규모와 경제발전 잠재력을 감안할 때 中國의 개발은 東北亞 各國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하는 動因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섯째, 러시아聯邦은 경제개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극동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유엔공업 개발기구」(UNIDO)에 의하여 주관되고 있는 ‘광역블라디보스톡 자유경제지대(Greater Vladivostok Free Economic Zone: GVFEZ)’ 개발계획 구상 및 정부의 비준을 받은 나호트카시 일원에 대한 「자유경제지대」 설치 등을 통하여 역내 각국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

여섯째, 北韓은 금년 10월 「조선외국인투자법」을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하였다고 발표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北韓은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여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조총련계와의 합작만이 소규모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北韓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것인지는 미지수이지만 北韓이 역내국가들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냉전시대의 정치적 장벽이 제거됨으로 인하여 東北亞地域 국가들간 지리적 인접성은 역내 국가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촉진하는 근본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를 제외한 역내국가들은 문화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어 역내국가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나. 多者間 接近方法의 必要性和 限界

東北亞地域 국가들간 양자간 경제관계의 확대는 상호의존도 관리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이와 같이 상호의존도 심화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관리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양자간, 다자간 또는 세계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세계경제는 현재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통한 범세계적 무역관리와 「유럽공동체」 등 지역주의화로 대변되는 다자간 상호의존 관리체제 및 양자간 협상을 통한 통상마찰 해소 등 다중적 구조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東北亞地域도 역내 경제관계의 활성화로 인하여 하나의 경제권으로 부상하려는 초기단계에 있다. 따라서 東北亞地域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상호의존도 확대에 따르는 문제점을 양자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지역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 협의체 구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東北亞

經濟協力에 대한 다자간 접근 문제는 다음과 같은 촉진 및 제약요인에 의하여 그 속도와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분석된다.

(1) 促進要因

먼저 다자간 기구에 의한 상호의존도 관리를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첫째, 역내 상호의존도 증가추세이다. 이와 관련, 東北亞地域에서는 최근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환경문제는 원인 제공시점과 피해시점 사이의 시간적 차이 때문에 원인제공자를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우며 그 피해가 여러 국가에 걸쳐 확산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자적 접근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東北亞地域의 육로, 해로 및 항공로 등 교통망의 구축문제에 있어서도 다자간 접근이 양자간 접근보다 效率的인 것으로 판단된다. 東北亞地域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이 양자간 접근에 의한 해결이 곤란한 지역적 문제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다자간 협상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역내 상호의존도 증가는 國家境界를 넘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경제권」 개념의 확산을 초래하고 있다.²¹⁾ 예를 들면, 홍콩과 中國 광둥성 사이에 밀접하게 연관된 분업체계의 형성 등 주로 東北亞地域의 연안지역을 따라 이와 같은 경제권이

21) Robert A. Scalapino,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east Asia: The Prospects for Cooperation," Regional Forum on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September 3) 참조.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역내활동 증가에 따라 국가간 경제관계뿐 아니라 역내 또는 역외 다국적기업과 역내국가사이의 협상 또는 다국적기업간의 협상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초국가적 경제관계」의 확산은 점진적으로 다자간 접근을 요구할 것이다.

셋째, 東北亞地域 국가들간 경제관계의 특징은 수직적 분업을 위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역내국가들간 수직적 분업의 심화는 후진국과 선진국간 남북문제를 대두시켜 역내 경제관계를 대립적 관계로 고착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日本의 역내에서의 패권주의적 역할을 반대하는 역내국가들로서는 日本을 정점으로 하고 여타 국가들이 이를 따르는 「雁行模型」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東北亞經濟協力은 역내의 「수직적 분업체계」를 점진적으로 「수평적 분업체계」로 전환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바,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는 다자간 협의를 통한 역내국가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東北亞地域 국가들이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지지한다 하더라도 타 지역의 지역주의화 경향을 저지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역내국가들은 유럽공동체나 북미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주의의 확산에 대비하여 東北亞地域에도 지역협의를 결성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특히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냉전 이후시대의 국제질서하에서 경제가 우선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東北亞地域 국가들도 타 지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東北亞地域은 아·태지역보다는 작은 지리적 범위를 가지고 있는 바, 아·태지역 경제협력문제가 다양한 국가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 東北亞地域은 지리적 인접성 및 대상국가가 한정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이와 같은 地理的 限定性은 역내에 다자간 협의기구를 설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 制約要因

東北亞地域에 대한 다자간 접근은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나 단기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제약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東北亞地域의 역내 상호의존도가 아직은 미약한 실정이다. 東北亞地域 역내 상호의존도 발전 추세를 타 지역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 <표 14>와 같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경제통합이 가장 많이 진전된 유럽공동체의 경우, 1970년에 이미 역내무역 의존도가 50%를 넘어서 1991년에는 60%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北美國家들도 40%수준에 달하는 역내무역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남아국가연합」도 15~1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東北亞地域 역내무역 의존도는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여왔으나 최고조에 달한 1991년에도 15.8%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낮은 역내무역 의존도는 東北亞地域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하

나의 경제권으로 구분되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²²⁾ 따라서 東北亞地域에 현재 상황하에서는 지역경제협의체가 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표 14> 지역별 역내무역 의존도

(단위: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동 북 아	11.4	13.6	11.9	14.7	14.5	15.8
유 럽	50.5	50.3	52.4	54.8	60.9	60.7
북 미	40.0	36.6	33.1	38.7	39.3	39.0
동 남 아	16.4	14.2	16.6	18.3	16.7	17.5

출처: <표 1>과 같음.

* 유럽: 유럽공동체, 북미: 美國, 멕시코, 캐나다

동남아: 동남아국가연합

둘째, 日本의 역할 문제이다. 日本은 막대한 무역흑자와 경제 규모로 세계적 경제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日本경제의 세계적 역할은 日本이 지역적 역할을 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이다. 특히 日本은 막대한 무역흑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한정된 세계경제 자본의 유동성을 감안할 때 日本이 東北亞地域국가로서 역내국가들과의 경제관계에 치중할 수만은

22) 지역경제협력체 구성 요건상 역내무역 의존도는 적어도 30%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논의되는 지역의 무역이 세계무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무역의 15%이상을 차지하여야 한다는 점과 주요역의 관계국과의 무역의존도는 10%미만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아울러 제기되고 있다. 鄭永祿, “國際經濟救助와의 연계와 아시아의 地域的 상호의존,” 한림대 사회조사연구소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2. 11) 참조.

없는 것이다. 그러나 東北亞地域 상호의존성 관리문제에 대한 다자간 접근에 있어 역내 유일한 선진국인 日本의 적극적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한편 日本의 역할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역내국가들은 日本의 경제력을 인정하면서도 日本의 과거사와 관련하여 日本이 주도하는 다자간 접근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역내국가들의 대미 의존도 문제이다. 앞의 II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역내국가들은 美國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美國은 아·태지역에서 美國을 배제한 지역주의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바, 東北亞地域 국가들만의 다자간 협의체 구성은 美國의 양해가 없이는 곤란한 실정이다.

넷째, 역내국가들의 경제발전 격차문제이다. 東北亞地域에는 선진국인 日本, 신흥공업국인 韓國, 개발도상국인 中國, 체제전환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聯邦과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주체경제의 비효율성으로 경제난에 처해 있는 北韓 등 경제발전 격차가 심한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역내국가들간 공통의 이해관계를 도출하기 힘든 실정이며, 러시아 및 北韓의 장래에 대한 불투명성은 역내국가들이 다자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폭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東北亞 경제협력에 있어서 다자간 접근에 대한 제약 및 촉진요인에 의하여 동북아 경제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東北亞 經濟協力は 협력의 목표와 관련하여 東北亞地域 국가

들이 유럽공동체와 같은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경우와 역내 국가간 경제관계 확대 및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두가지 형태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東北亞 경제협력의 궁극적 목적을 경제통합에 둘 경우에는 우선 역내국가간 상호의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역내국가들이 역내국가간 관세인하를 비롯하여 자본 및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정책의 채택등 역내국가들간 정책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역외국가들에 대하여 排他性 또는 開放性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현존하는 국제기구의 활동과 東北亞 經濟協力の 발전을 어떠한 형태로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東北亞 經濟協力の 목적을 교역 및 직접 투자를 비롯한 역내국가간 경제관계 확대와 경제관계 심화에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들을 협의하는 경우로 국한시킬 경우에는 우선 산업간 무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동시에 산업간 무역을 산업내 무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역내국가간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및 선진국의 중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 등 협조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東北亞地域의 역내경제관계를 현 시점에서 보면 앞의 분석이 보여주듯이 협력의 목표를 후자에 두고 상호의존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東北亞 經濟協力에 대한 다자간 접근은 양자간 접

근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협력은 당분간 양자간 경제관계의 확대 및 이에 따른 相互依存性을 兩者間 協商을 통하여 관리하는 차원으로 발전하면서 점진적으로 多者間 協議를 통한 문제 해결방식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방향의 경제협력 발전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21세기의 東北亞地域을 상징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구상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東北亞 경제권에 대한 각국의 구상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中國에서는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 경향에 따라 ‘太平洋 經濟共同體’ 건립 구상을 시작으로 하여 漢民族 經濟共同體 성격의 ‘大中華共同市場’ 형성에 대한 구상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中國 남부연안 개방지역을 중심으로 한 ‘華南經濟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화남경제권은 홍콩과 마카오가 中國에 반환되면 이들 지역과 中國측 경제특구와의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中國의 구상은 화남경제권을 단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中國통일의 한 단계인 경제통합을 이룩하고 국내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大中華經濟圈’을 구축하겠다는 발상으로서 국제적 경제권역화라기 보다는 中國 자체의 경제발전 전략이라 할 수 있다.²³⁾

23) ‘太平洋 經濟共同體’構想은 역내 국가간의 貿易, 資本 移動, 技術 移轉 및 資源

한편, 中國측 학자들은 日本에서 ‘環日本海 經濟圈’을 주제로 한 논의가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黃海 經濟圈’ 구상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中國은 日本이 배제된 황해경제권 구상이 하나의 독립적 경제권을 구성한다기 보다는 東北亞 경제권 형성의 달성을 위한 하나의 과도적 접근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는 日本이 東北亞地域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⁴⁾

둘째, 최근 日本의 학자들은 ‘環日本海 經濟圈’ 구상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특히 니이가타 지방을 중심으로 한 日本의 동부지역에서 심포지엄 및 세미나가 빈번히 개최되고 있으며 연구회가 조직되고 있다. 環日本海 經濟圈은 韓國, 日本, 러시아, 中國, 그리고 北韓을 주요 구성국으로 하며 이들 국가들의 동해에 면한 지역을 주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 日本측 구상의 특징은 東北亞 경제권 구상에 있어서 광범위한 국가를 단위로 하기 보다는 環日本海 경제권과 같이 연해지역 간의 국제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개발계획을 통한 접근을

의 探查와 開發 協力을 목표로 중국과 역내 선진공업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촉진시키고, 사회제도와 경제발전 정도가 다른 국가 들간의 연계를 통하여 蘇聯 霸權主義의 침투를 막아 지역의 경제와 정치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역내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公平하고 合理的인 互惠平等의 원칙에 입각한 경제 협력을 통하여 중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大中華 共同市場’은 세계적 지역주의화 추세에 中國인들이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中國, 홍콩, 마카오, 대만 및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경제권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吳勇錫, “東北亞 經濟協力에 관한 中國의 構想과 戰略,” 「東北亞 經濟 協力の 輿件과 展望」(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pp. 160~98 참조.

24) 吳勇錫, “東北亞 經濟協力에 관한 中國의 構想과 戰略,” p. 171 참조.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日本은 자본 및 기술면에서 東北亞地域에서 주도적 입장에 있으나 日本의 세계적 역할과 자본의 유동성 한계를 고려하여 環日本海 경제권이 개방적이어야 하며 배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²⁵⁾

셋째, 러시아聯邦의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구체적 구상은 정리되어 있지 않으나 최근에 극동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특구를 건설하는 등 극동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표명되고 있다. 러시아聯邦의 東北亞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은 구소련시대부터 표방되었는 바, 구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는 ‘블라디보스톡 선언’에서 소련이 아시아·태평양국가임을 표방하고 소련이 아·태지역국가들과의 쌍무적 관계 활성화 및 소련 극동지역이 이 지역 경제협력에 참여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아·태지역에 대한 소련의 관심과 협력의지를 재표명하였으며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러시아는 이후 극동지역 발전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나호트카市 일원에 「自由經濟地帶」를 창설하였으며,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의 도움으로 ‘광역블라디보스톡 경제특구’ 구상을 수립하였다.²⁶⁾

25) 姜興求, “東北亞經濟協力에 관한 日本의 視角과 展望,” 「東北亞 經濟協力の 與件과 展望」(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pp. 237~56 참조.

26) 李昌在, “東北亞經濟協力에 관한 蘇聯의 視角과 政策方向,” 「東北亞 經濟協力の 與件과 展望」(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pp. 199~236 참조.

넷째, 北韓은 동구권과의 교역 감소와 러시아의 원조중단 및 경화결제요구로 인하여 대외무역관계가 대폭 축소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무역대상국으로서 中國의 상대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北韓은 「國際聯合開發機構」가 주관하는 「豆滿江地域開發計劃」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北韓은 금년 4월 「두만강개발에 관한 평양국제회의」에 美國, 日本 및 韓國을 포함한 각국의 대표단을 초청하여 두만강개발에 관한 설명회를 가지고 두만강지역을 시찰시키는 등 두만강 개발에 관하여 전례없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東北亞 經濟協力에 대한 각국 학자 및 전문가들의 구상은 2000년대를 향한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東北亞地域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들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되기 위하여는 먼저 東北亞地域 역내국가간 경제관계가 보다 더 긴밀화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간에 걸친 학계, 재계 및 정부간 토의와 협상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東北亞地域에서도 아·태지역의 경제협의체 구성과정이 보여주듯이 먼저 학계 및 재계를 중심으로 한 토의를 통하여 東北亞 경제권 형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東北亞地域의 경제관계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토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경제협의체 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第Ⅳ章 結 論

동북아 경제협력의 발전은 韓國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폐쇄적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北韓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한반도는 동북아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중요성과 남·북분단상황으로 인하여 안보측면에서뿐 아니라 경제측면에서도 역내 지역협력의 발전에 관건적인 지역이다.

韓國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에 따라 韓國은 신흥공업국의 대열에 올라섬으로써 동북아지역을 포함한 세계경제의 상호의존도 심화에 긍정적 기여를 하였다. 반면 北韓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초기 단계에는 외연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주체사상에 입각한 경직된 체제의 운용으로 경제난을 자초하였다. 北韓은 자립적 주체경제원칙하에 대외무역을 대내경제 활성화의 보조수단으로 인식한 결과 대외경제교류에 수반되는 선진국의 기술 및 자본 활용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산업기술의 낙후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北韓이 동북아지역 경제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요인중의 하나가 역내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역내국가들은 北韓의 經濟 開放을 誘導하여

동북아지역의 경제관계가 보다 더 활성화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하겠다.

1. 東北亞 經濟協力과 韓國의 對應

가. 國土均衡發展과의 調和

韓國의 역내 경제관계를 양자관계에서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중간 경제교류가 최근 급속히 증가되고 있으나 한·일 간 경제교류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韓國의 對日依存度는 對美依存도와 함께 동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토의 불균형 발전 현상을 초래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도 동해를 중심으로 한 경제권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서해안지역을 소외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 균형발전과 연계하여 韓國은 동북아지역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産業構造調整과 連繫된 東北亞 經濟協力

韓國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여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여 있다. 이를 위하여는 역내 선진국인 日本에 대한 수출 노력을 강화하여 무역불균형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日本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美國 경제의 세계적 중요성 및 시장의 규모를 감안하

여 기존 美國 시장확보율을 유지·확대함으로써 韓國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역내 개발도상국인 中國과의 경제협력은 韓國이 국제무대에서 비교우위를 점차 상실하고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점진적으로 이전하여 中國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연방은 비록 경제체제의 전환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있지만 항공 우주공학 및 기초과학 분야에서 고급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韓國의 경영기술과 자본을 이용하여 러시아 군수산업의 민수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고급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다. 經濟의 世界化와의 均衡

韓國은 근본적으로 天然資源이 不足한 나라이며 수출주도에 의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이므로 세계경제가 보호무역주의화 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韓國은 동북아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동북아지역이 역외국가에 대하여 배타적 정책을 취하거나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을 보이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경제는 점차 세계화하고 있어 국가간의 경계가 차츰 전통적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는 바, 韓國도 이와 같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동북아지역의 상호의존도를 심화하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민간부문에 의한 자율적 역할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라. 多樣한 經濟協力 채널의 開發

동북아 경제협력의 대상국가인 러시아연방과 中國은 국토가 광활하며 인구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러시아 연방은 유럽국가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러시아의 극동지역만이 동북아 경제협력의 대상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中國은 동북3성이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서 양국 중앙정부의 역할과 함께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韓國은 中國과 러시아 지방정부와의 경제관계를 수립함에 있어 민간단체의 역할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中國과 러시아 地方政府의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과 합치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할 때 매우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마. 重層的 接近 必要

결론적으로 韓國으로서는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발전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중층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現存하는 國際機構의 활동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은 아·태지역의 일부이며 韓國은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동북아 경제협력 문제가 「아·태경제협력 각료회의」에서 보다 包括的인 次元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볼 때,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에 대응하

는 차원에서 역내국가들이 지역주의화를 추구할 경우 韓國은 이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역내국가간 상호의존도 심화에서 비롯될 제문제를 討議하는 水準의 「經濟協議體」를 구성하자고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협의체 형태의 역내지역기구는 미국을 비롯한 역외국가들의 동북아시아의 지역주의화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협의체 형태의 기구는 기존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역내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21세기를 대비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질서 모색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世界經濟의 開放性 維持와 관련, 韓國은 다자간 무역협상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자간 무역협상의 결렬은 쌍무적 무역개방 압력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韓國은 이에 대비하여 美國과의 협상을 비롯한 쌍무적 무역협상에서도 전향적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2. 東北亞 經濟協力과 南北韓 經濟關係

가.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과 南北韓 經濟關係 發展의 相關性

中國의 개혁·개방과 러시아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은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동북아시아에 마지막 남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인 北韓이 개방과 개혁을 추진

하여 市場經濟體制로 編入된다면 동북아지역의 경제구도는 안정적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北韓의 경제개방을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北韓과 가장 가까운 이웃인 中國의 경제개방과 개혁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성공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中國은 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北韓의 가장 중요한 무역대상국으로 北韓에 대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경제관계 심화는 中國으로 하여금 대한반도 정책을 점진적으로 韓國에 경사된 방향으로 추진하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예측은 러시아연방의 외교가 한·러 경제관계 심화로 인하여 엘친 대통령이 韓國을 방문하는 등 점진적으로 한반도에서 韓國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동북아지역에서 韓國의 양자간 경제관계 발전은 北韓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韓國은 南北韓 경제관계 발전이 통일을 향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동북아 경제협력의 단절된 고리를 한민족이 합심하여 이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협력문제와 관련한 역내 국가들의 다자간 접근이 실현될 경우에는 北韓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나. 南北韓 經濟關係 發展을 위한 東北亞 經濟協力 構圖

동북아 경제협력은 한반도의 전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포함하

며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이 2000년대를 향한 장기적 구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보다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의 발전을 한반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北韓은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바, 韓國은 南北韓 경제관계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우회적 접근방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韓國의 對中國 경제관계 확대와 관련, 韓國은 北韓과 인접한 지역이며 韓民族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만주지방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中國 거주 조선족과의 경제협력은 北韓주민들에게 韓國의 발전상을 알리는 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해외거주 동포들의 생활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日本의 對北韓 수교교섭 과정에서 韓國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北韓은 현재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日本의 對北韓 배상금을 이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韓國은 日本의 對北韓 배상금이 北韓에서 경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日本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러시아연방 극동지역의 자원개발시 北韓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등 제3국에서의 南北韓 합작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3국에서의 南北韓 합작사업은 北韓으로서는 개방에 따른 체제위협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환영할 일인 것이다.

넷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연합개발기구」 주관의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의 수립과정에서 韓國은 北韓의 입장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향후 약 20년간을 사업기간으로 잠정적으로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중인 바, 한반도의 통일상황을 염두에 두고 동 계획이 統一韓國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위와 같은 南北韓 경제관계 발전을 위한 우회적 접근 방법이 사실은 차선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南北韓間 직접 경제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여 北韓住民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고 궁극적으로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姜興求. “東北亞 經濟協力에 관한 日本의 視角과 展望.” 「東北亞 經濟協力的 與件과 展望」,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 對外經濟政策研究院 編. 「東北亞 經濟協力的 與件과 展望」, 서울: 對外經濟 政策研究院, 1991.
- 申相振. 「中國의 改革 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 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限界」,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 吳勇錫. “東北亞 經濟協力에 관한 中國의 構想과 戰略.” 「東北亞 經濟協力的 與件과 展望」,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 尹德熙·金圭倫 共著.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1.
- 李東輝. 「아시아·태평양 地域協력과 韓國의 對應方案」, 서울: 外交安保研究院, 1991.
- 李昌在. “東北亞 經濟協力에 관한 蘇聯의 視角과 政策方向.” 「東北亞 經濟協力的 與件과 展望」,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 鄭永祿. “國際 經濟構造와의 연계와 아시아의 地域的 상호의 존.” 한림대 사회조사연구소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2.
- _____ . 「東北亞地域 貿易構造와 域內輸出競爭力 比較」, 서울:

-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 現代經濟社會研究院. 「中國 政治 經濟의 懸案과 展望」. 서울: 現代經濟社會 研究院, 1992.
- 서울大學校 世界經濟研究所. 「新國際秩序와 東北亞 經濟協力」. 서울: 서울大學校 世界經濟研究所, 1992.
- 통일원. 「남북교류협력동향」. 서울: 통일원, 1992.
- Li, Haeng Ho.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Development of Tumen Delta."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velopment of Tumen Zone and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발표논문, 1992.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각년호.
- Miller, M., Holm, A. and Kelleher, T.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Mission Report."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1991.
- Scalapino, Robert A.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east Asia: The Prospects for Cooperation." Regional Forum on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발표논문, 1991.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Preparatory Assistance Document." UNDP, 1991.
- _____.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First Meeting of Programme Management Committee.

“CONCLUSIONS.” 1992.

_____. “Northeast Asian Nations Sign Agreement Launching Tumen River Development: China, Mongolia, Russia, North and South Korea Agree on Next Phase of Cooperation.” UNDP. 1992.

<附錄>

東北亞地域 國家들의 域內 輸出·輸入 現況

<附表 1> 한국의 域內 수출·수입

(단위: 백만달러)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중 국	수 출	0	0	117	683	1553	2371
	수 입	0	0	75	609	2268	3441
일 본	수 출	208	1188	2764	3767	10675	11255
	수 입	900	2471	5932	7875	19249	22097
북 한	수 출	0	0	0	0	5	26
	수 입	0	0	0	0	20	166
소 련	수 출	0	0	42	16	519	625
	수 입	0	0	7	42	370	577
동북아	수 출	208	1188	2923	4466	12753	14278
	수 입	900	2471	6015	8526	21907	26281

<附表 2> 일본의 域內 수출·수입

(단위: 백만달러)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중 국	수 출	569	2258	5109	12590	6145	8605
	수 입	254	1529	4346	6534	12057	14248
한 국	수 출	818	2246	5393	7159	17499	20088
	수 입	229	1307	3040	4144	11743	12381
소 련	수 출	341	1626	2796	2772	2563	2117
	수 입	481	1169	1873	1438	3370	3318
북 한	수 출	23	181	376	249	176	224
	수 입	34	65	181	177	298	275
동북아	수 출	1751	6311	13674	22770	26383	31034
	수 입	998	4070	9440	12293	27468	30222

<附表 3> 중국의 역내 수출·수입

(단위: 백만달러)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일 본	수 출	231	1390	3951	5940	10961	12953
	수 입	626	2484	5620	13849	6760	9466
소 련	수 출	23	151	228	1037	2048	1860
	수 입	24	146	264	1017	2213	2109
북 한	수 출	61	284	374	239	362	529
	수 입	54	198	303	245	129	87
한 국	수 출	0	0	68	554	2062	3128
	수 입	0	0	129	751	1708	2608
동 북아	수 출	315	1825	4621	7770	15433	18470
	수 입	704	2828	6316	15862	10810	14270

<附表 4> 소련의 역내 수출·수입

(단위: 백만달러)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일 본	수 출	437	1063	1703	1307	3064	3016
	수 입	375	1789	3076	3049	2819	2329
북 한	수 출	70	88	185	394	837	962
	수 입	52	97	220	315	452	483
한 국	수 출	0	0	7	38	336	525
	수 입	0	0	46	18	571	688
중 국	수 출	22	133	240	925	2012	1917
	수 입	26	166	251	1141	2253	2046
동 북아	수 출	529	1284	2134	2664	6248	6420
	수 입	453	2052	3593	4523	6095	5546

<附表 5> 북한의 역내 수출·수입

(단위: 백만달러)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일 본	수 출	31	59	165	161	271	250
	수 입	25	199	414	274	194	246
소 련	수 출	48	88	200	287	411	439
	수 입	77	97	204	433	920	1058
한 국	수 출	0	0	0	0	18	151
	수 입	0	0	0	0	6	29
중 국	수 출	49	180	275	223	117	79
	수 입	67	313	411	263	398	582
동 북아	수 출	128	327	640	670	817	919
	수 입	170	609	1029	970	1517	1915